

근대 초기, 신문과 대중의 소통 방정식
- 『일본 대중지의 원류』*를 통해 한국 대중서사의
초기 전개 양상 읽기

강현조**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쓰치야 레이코의 『일본 대중지의 원류』에 대한 독해를 통해 근대적 매체인 신문의 등장 이후 한국 대중서사의 초기 전개 양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 대중지의 원류』는 한국 근대 초기의 신문과 서사 양식이 맺고 있는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와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소신문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대중지향적인 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상층 계급을 대상으로 정론 표명에 주력했던 대신문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나타냈고, 그 결과 이후 모든 일본 신문의 표준적·보편적 체제로 자리잡음으로써 현재와 같은 대중지의 원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통계적 사실과 논거 제시를 통해 이와 같은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일본 신문 및 대중서사에 대한 그의 논의와 근거들은 한국 근대 초기 신문의 대중 매체적 성격과 여기에 실린 다양한 서사물들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쓰치야 레이코(土屋禮子) 저, 권정희 역, 『일본 대중지의 원류』, 소명출판, 2013.

** 연세대 교육개발지원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1895년 2월 창간된 『한성신보』는 비록 일인 발행 신문일지라도 한국 최초의 대중지로 볼 만한 특징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후 한인 발행 신문들은 형식면에 있어서는 『한성신보』의 대중 지향적 체제를 수용하였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공론 형성과 현실 비판에 주력하는 계몽 매체로서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장악한 이후 한국 신문이 대중들과 정치적인 영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입지는 대폭 위축되었고, 기존 신문과 후발 신문 간의 독자 확보 경쟁 또한 대폭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6년에 집중되었던 소설란의 개설 및 이인직과 이해조에 의해 주도되었던 신문연재소설의 속출 현상은 이러한 언론 환경 및 신문 시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요컨대 근대 초기의 신문들은 대중지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일본 소신문의 영향 속에서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지만, 시대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 현실과의 역동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신문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워졌고, 다시 대중지향적인 속성을 강화해 나갔다. 소설란의 본격적인 등장과 신문연재소설의 속출 현상은 신문사가 이러한 난관의 극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징후적 현상이며, ‘소설’이라는 표제 하에 초기 신문이 시도하고 기획하였던 서사물의 연재는 근대적 의미의 대중과 대중문학을 형성해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중서사로서 소설(novel)은 신문과 대중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느 순간 현상한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문과 대중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든 ‘촉매’이기도 하다.

(주제어 : 일본 대중지의 원류, 일본 대중지, 쓰치야 레이코(土屋禮子), 근대 매체, 근대 신문, 대신문, 소신문, 속담평화체(俗談平話體))

오늘날 우리가 근대소설(novel)이라고 부르는 장르의 형성에 있어 신문이 미친 영향의 크기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이 산출되는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문이라는 박래품(舶來品)이 흔히 ‘언문 이야기책’이라고 불렸던 기존의 고소설들과는 다른 형태의 서사물을 등장할 수 있게 만든 견인차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혈의루>와 <무정> 등의 작품이 모두 신문연재소설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록 일인(日人) 발행 신문에 의해 선도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이미 <혈의루>가 등장하기 20여 년 전부터 신문에는 다양한 연재 서사물이 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최초의 사례로는 1882년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4회에 걸쳐 『조선신보(朝鮮新報)』에 일문(日文)으로 연재되었던 <조선임경업전(朝鮮林慶業傳)을 들 수 있으며, 1896년 5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27회에 걸쳐 『한성신보(漢城新報)』 잡보란에 연재된 <조부인전(趙婦人傳)은 <혈의루>보다 10여년이나 앞서서 발표된 최초의 순국문 서사물이기도 하다. 이후 『한성신보』에는 <신진사문답기(申進士問答記)·<곽어사전(郭御史傳)·<남준여걸(男蠢女傑) 등 중편 분량의 서사물을 포함한 다양한 단형 서사물들이 연이어 잡보란에 연재되었고, 1897년 1월 12일부터는 국내 최초로 소설란이 개설되어 첫 작품인 <상부원사해정남(孀婦冤死害貞男)이 연재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인(韓人) 발행 신문 중 『매일신문』이 1898년부터 잡보란에 서사물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다소 시일이 걸리기는 했지만 1906년에 이르러 『대한매일신보』(2월)를 필두로 하여 『황성신문』(5월), 『만세보』(7월), 『제국신문』(9월) 등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설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혈의루〉의 등장 이전에도 신문은 다양한 서사물들이 게재되는 복합 매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물론 이 시기의 신문 게재 서사물이 근대적 의미의 소설(novel)에 육박하는 양식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지 전래 서사의 답습적 형태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적어도 신문은 19세기말의 조선에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매체이자, 필사와 세책 등의 방식으로 당대의 대중들에게 향유되던 전래의 서사물과는 다른 형태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수단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근대소설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온전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근대 초기 신문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엄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신문이 근대소설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든 제반 여건 및 요인에 대한 학적 고찰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원영과 김영민 등의 선구적인 업적이 있긴 하지만 자료의 부전(不全)이라는 근본적인 제약은 이 분야의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문을 통한 근대적 서사의 등장 과정과 그 전개 양상은 분명 대단히 역동적이면서도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고찰은 그나마 접근이 가능한 일부 현존하는 자료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퍼즐 조각’이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에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쓰치야 레이코(土屋禮子)의 『일본 대중지의 원류』는 한국 근대소설사의 ‘퍼즐 맞추기’를 위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톡톡히 할 만한 유용한 도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책은 한국 근대 초기의 신문과 서사 양식이 맺고 있는 상호 연

관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와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먼저 저자는 소신문이라는 개념 혹은 용어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온 양상에 주목한다. “정론 위주의 대신문 대 오락 위주의 소신문”이라는 구도는 한국인 연구자들에게도 익숙한 것이지만 그러한 대립적 상태는 그리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해 대신문과 소신문의 차이는 이미 1886년 9월에 실시된 『우편호치신문(郵便報知新聞)』의 전면적인 지면 개혁과 함께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소신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과거의 어휘로 퇴각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소신문은 초창기에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문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나타냈고, 그 결과 이후 모든 일본 신문의 표준적·보편적 체제로 자리잡음으로써 현재와 같은 대중지의 원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소신문은 형식면에서는 후리가나 표기와 속담평화체(俗談平話體)의 사용을 통해 부녀자·동몽(童蒙)으로 대표되는 비식자층의 수준 및 취향에 적합한, 평이하면서도 구연성(orality)에 기반한 언어 공간을 창출하였고 내용면에서는 문명개화와 권선징악이라는 민중 교화의 가치를 내걸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독자층의 기호에 영합하는 선정적이면서도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를 주로 제공함으로써 상업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소신문의 특징이 형성된 배경으로 먼저 당대 일본 대중의 리터러시(literacy)에 계층별로 편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신문의 논설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식자층은 소수 귀족 계층에 한정된 반면 다수의 평민들은 비식자층 혹

은 준식자층(가나를 읽고 쓰지만 한자를 읽고 쓰는 것이 능숙하지 않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신문의 후리가나 표기 및 속담평화체가 대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개연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색인쇄목판화를 배경으로 삼아 기사 본문을 결합시킨 니시키에(錦繪)신문 또한 이러한 비식자층 및 준식자층을 대상 독자로 삼은 초기 미디어로서 소신문 시장의 성립 터전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한다. 니시키에신문은 훗날 잡보에 그림을 곁들여 내보내는 삽화 소신문 형식의 원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대중 저널리즘의 출발점으로서 일본 특유의 만화 문화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친 시각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신문은 독자 참가의 장인 투서란을 마련함으로써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를 무대로 활약하는 투서가 집단을 출현시켰다고 한다. 이 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의견 중심의 투서만이 아니라 계몽적인 교훈담이나 노래가사 바꾸기 등의 풍자, 수필문 등 오락적인 면을 많이 포함한 다채로운 글들이 게재됨으로써 도시화한 당대 사회의 살롱 문예 발표장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한편 소신문은 메이지 초기 언론 통제에 의해 적지 않은 필화 사건을 겪으면서도 자유민권운동이 고조되었던 메이지 10년대 중반부터는 그때까지 대신문에만 있었던 논설란을 개설하고 정당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등 정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부의 언론 탄압과 관보의 창간은 소신문의 비정치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상품으로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소신문 스스로도 그러한 흐름을 가속화시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악한이나 독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전략상품화함으로써

독자 확보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잡보란 내의 문예물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쓰즈키모노(續き物)가 점차 독립된 연재소설로 발전해나갔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일본 소신문의 역사를 다룬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저자의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중 미디어로서의 대중지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이란 누구인가, 대중성이 발견되는 계기란 무엇인가라는 대중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공유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통적인 기반에서 신문을 읽는 ‘대중’ 독자란 과거에는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의 시점을 견지한다면 소신문의 흥미로운 또 다른 면면이 부각된다. 즉 소신문은 신문이 매스미디어로서 확립되기 이전, 미디어의 과도기에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신문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무렵, “도대체 신문이 뭐야?”라고 호기심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혼란과 다양한 기획이 이루어지는 최전선의 장(場)이었다.”¹⁾

요컨대 근대 초기 한국의 신문에 대한 물음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즉 신문을 처음 접한 당대의 독자로서 대중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대중들에게 신문은 과연 어떤 대상으로 인식되었는가, 나아가 대중과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속해나가기 위해 신문은 어떤 기획과 노력을 펼쳐보였는가 등의 의문이 그것이다.

한국 신문의 역사는 『한성순보(漢城旬報)』(1883.10~1884.12)와 『한성주보(漢城週報)』(1886.1~1888.7)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신문들은 정부 기관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사실상 한문에 기반한 문체

1) 쓰치야 레이코(土屋禮子) 저, 권정희 역, 『일본 대중지의 원류』, 소명출판, 2013, 11~12쪽.

로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지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두 신문의 발행으로 인해 당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신문이라는 매체에 대한 최초의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인식의 내용은 아마도 ‘신문이란 세계 각국의 문물과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는 글을 담은 정보지이며, 아울러 중앙정부와 각 지방에서 벌어지는 정치·경제·사회상의 동향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문물’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초기적 환경 속에서 1895년 2월 창간된 『한성신보』는 비록 일인 발행 신문일지라도 한국 최초의 대중지로 볼 만한 특징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신문은 국문 지면(1~2면)과 일문 지면(3~4면)으로 분할되어 있었고, 국문 지면의 경우 순국문체 기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신문이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을 대상 독자로 삼고 있었음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대체로 비식자층으로 볼 수 있는 언문 독해층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문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잡보란이었으며, 여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연재물 즉 쓰즈키모노가 실렸다. 이는 일본 본토에서 유래된 소신문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한성신보』는 맹아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조선의 수도에서 발행되어 우편 시스템을 통해 각 지방으로 배포되는 전국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1896년을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1,911명²⁾에 달할 정도로 규모 또한 작지 않았다. 결국 이 당시에 이미 일본 신문의 보편적인 틀로 자리잡고 있었던 소신문 체제는 『한성신보』를 통해 당대의 조선인

2) 참고로 『한성신보』의 조선인 독자 대 일본인 독자의 비율은 대략 2.5:1 정도였다.(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2 : 『한성신보』』, 소명출판, 2008, 21쪽 참조)

들에게 전파되었고, 이로 인해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접한 이후로 대중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신문이라는 매체에 대한 초창기적 인식은 '언문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정보·소식지인 동시에 다채로운 읽을거리가 실린 오락물'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성신보』 이후에 창간된 초기의 한인 발행 신문들도 전반적으로 이 신문의 발행 체제를 수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황성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 예컨대 『독립신문』·『매일신문』·『제국신문』과 기독교 계열의 신문인 『조선크리스도인회보』·『그리스도신문』 등 1890년대 말에 창간된 신문들은 예외 없이 모든 기사를 순국문으로 집필하였던 것이다. 이는 한인 발행 신문의 대상 독자층 혹은 목표 독자층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신문들은 형식면에 있어서는 『한성신보』의 대중 지향적 체제를 수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공론 형성과 현실 비판에 주력하는 계몽 매체로서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 초기의 한인 발행 신문은 주로 논설을 통해 대중 독자의 계몽에 주력하는 한편 『한성신보』의 잡보란 자체는 수용하면서도 연재물 형식의 서사물보다는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한 보도 기사를 주로 게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오락성보다는 시사성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는 열강의 국권 침탈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복과 자강의 이념을 설파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자 했던 당대의 신문 발행인들의 의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근대 초기 신문의 대중성은

일본 소신문의 그것과는 함의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러일전쟁의 승리 및 을사늑약의 체결로 일본이 조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자 한국 신문이 대중들과 정치적인 영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입지는 대폭 위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대한매일신보』·『만세보』·『경향신문』은 물론 친일지인 『국민신보』·『대한신문』 등의 창간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존속하고 있었던 기존의 신문들과 후발 신문들 간의 독자 확보 경쟁 또한 대폭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06년에 집중되었던 소설란의 개설 및 이인직과 이해조에 의해 주도되었던 신문연재소설의 속출 현상은 이러한 언론 환경 및 신문 시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이 사주였기에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대한매일신보』를 제외하면 논설을 통해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일은 점점 더 여의치 않게 되었고, 포화 상태의 경쟁 구도는 독자의 확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문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게(더 정확하게는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만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콘텐츠로서 소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19세기말에 창간된 초창기의 신문들은 대중지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일본 소신문의 영향 속에서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지만 시대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 현실과의 역동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세와 신문 시장의 상황은 계속 열악해져갔고, 1905년을 넘어서면서 신문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소설란의 본격적인 등장과 신문연재소설의 속출 현상은 신문사가 이러한 난관의 극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징후적 현상일 수 있다. 근

대 초기 한국의 신문연재소설들이 정치성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에 있어서는 훨씬 더 대중성에 경사되어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비록 오늘날과 같은 근대소설(novel)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소설’이라는 표제 하에 초기 신문이 시도하고 기획하였던 서사물의 연재는 근대적 의미의 대중과 대중문학을 형성해내는 계기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필자는 선철들의 업적을 상고(詳考)하며 이제서야 조금씩 근대 초기의 신문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한 초보 수준의 연구자인 까닭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나마 이 시기의 신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오던 것 이상으로 ‘복합적인 대중 매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대 초기의 신문지면은 사실과 허구, 그리고 공론(公論)과 기문(奇聞)의 미분화 상태를 노정하고 있었고, 박래품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외래의 담론 및 서사 양식이 투입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래적인 요소들 또한 새로운 형태로 재맥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착종의 혼란 속에서도 제도화된 매체의 ‘관성’은 집단으로서의 대중을 점차 구체적으로 호명함과 동시에 구성해 나갔고, 그렇게 형성된 대중은 계몽 혹은 자각의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갔다. 대중 서사로서 소설(novel)은 이러한 신문과 대중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느 순간 현상한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문과 대중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든 ‘촉매’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소견은 한 번 훑어볼 만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근거가 박약하고 정연하지 못한 역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지의 원류』에 대한 독서를 통해 근대 초기 한국의 신문이 주로 어떤 계층 혹은 집단을 독자로 확보하려고 했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했으며, 이 모든 기획과 실천의

과정에서 서사는 어떻게 소설로 변화해 나갔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의미한 사유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국의 근대 초기 대중과 서사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두 가지 첨언할 말이 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부족하다’는 겸양의 언사를 자주 쓰고 있지만, 그가 참조할 수 있었던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당대의 자료들에 대한 부러움, 더 정확히 말해 이러한 귀중 자료들을 비교적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연구 환경에 대한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인터넷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초기 문화·문학 관련 자료를 원하는 때에 제대로 보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 근대문학 연구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아카이브(archive) 구축을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노고 못지않게 각고의 심혈을 기울였을, 필자로선 아쉽게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번역자 권정희 선생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번역서에 대해 좀처럼 정당한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이 조만간 개선되기는 난망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무려 3년에 걸쳐 이 책의 번역에 매달렸던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필자같은 사람은 쓰치야의 노작(勞作)을 읽어볼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비록 독자 중의 일개인에 불과하지만 지면을 얻은 이상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한다.